세상에서 제일 큰 것

(나훔 1:1~15)

9.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10. 가시덤불 같이 엉크러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11.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12.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13. 이제 네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15.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세상에서 제일 큰 것>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것'
오늘 본문 중 특히 15절은 이사야서나 로마서에서도 언급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멕시코 출신의 작가 카르멘 코랄레스(Carmen Corrales)의 "세상에서 제일 큰 상자"라는 이야기 그림책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욕심 많은 고양이 레오노라입니다. 레오노라는 뭐든 모으는 것을 좋아합니다. 바퀴벌레, 비둘기깃털, 형형색색의 털실뭉치 같은 것들이 레오노라에게는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오노라가 그 중에서도 특히 좋아하는 것은 상자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오노라의 방은 갖가지 상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오노라는 여전히 더 많은 상자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레오노라는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커다란 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상자야말로 레오노라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세상에서 제일 큰 상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상자를 들여놓기에는 방이 너무 좁았습니다. 이 상자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방에 있는 무언가를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퀴벌레도 버리고 비둘기깃털도 버리고 털실뭉치도 버리고 그렇게 아끼고 좋아했던 여러 모양의 상자들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방을 다 비운 레오노라는 큰 상자를 들여놓을 생각에 신이 나서 언덕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상자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레오노라는 안타깝고 허탈한 마음으로 텅 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텅 빈 방안에서 뒹굴며 지내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온갖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방안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때에 레오노라는 깨달았습니다. 텅 빈 방이야 말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세상에서 제일 큰 상자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작가는 아이들에게 비움의 미학을 전하고자 합니다. 참 간절하고도 과감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이야기는 법정 스님의 “텅 빈 충만”이라는 수필집의 제목을 연상시킵니다. 법정 스님은 “빈 방에 홀로 앉아있으면 모든 것이 넉넉하고 충분하다.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득 찼을 때보다도 더 충만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참 멋진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영적인 측면에서 짚어보면 단순히 멋지다고 여길 수만은 없는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무엇인가를 갖고 싶거나 이루고 싶다는 욕구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욕구를 삭히거나 억누르거나 제거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결핍에 대한 자각증세가 사라집니다. 욕구가 없으면 결핍감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명품백을 갖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이때에 마음은 명품백이 없다는 결핍감, 돈이 없다는 결핍감에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없다는 느낌이 마음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품백을 갖고 싶다. 명품백을 살만큼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배고픔이 강렬해집니다. 욕구가 마음의 굶주림을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읽고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명품백에 대한 욕구를 삭히고 제거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서는 명품백에 대한 결핍감이 사라집니다. 명품백이 필요치 않게 되니 돈이 없음에 대한 결핍감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게 지금 없는 것들에 대해 갖고 싶다는 욕구를 키우면 동시에 결핍감이 강해집니다. 반대로 갖고 싶다는 마음을 없애면 결핍감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혜자나 사상가들 특히 불교에서 갖는 큰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갖고 싶어 하는 욕구를 자제하거나 억누른 결과 결핍이 사라지게 된 마음의 상태를 충만함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공사상(空思想)이 말하는 충만이 이러한 착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텅 빈 상태는 텅 빈 상태일 뿐입니다. '텅 빈 충만'이란 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텅 비어서 욕구가 없는 상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상태가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성은 욕구가 없는 상태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채워지기 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에 마음이 텅 비게 태어난 인간의 평생 과제는 채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채움 대신에 비움의 미학이 언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죄로 인해서 마음을 채워서는 안 되는 것으로 채우려 한 결과 채워짐을 느끼지도 못하고 괴롭기만 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예 채우려하지 말라는 권고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계시받지 못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선의 지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지혜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가지도록 허락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채움을 경험할 수 없기에 비움의 미학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움의 미학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양이 레오노라의 상자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인간의 마음이야 말로 레오노라가 원했던 세상에서 가장 큰 상자입니다. 우리는 제일 큰 상자를 원할 필요도 없고 새삼스럽게 가져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마음이라는 제일 큰 상자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마음이라는 제일 큰 상자를 어떻게 채우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소모하여 제일 큰 상자를 찾아내고자 합니다. 제일 큰 상자를 찾는 끊임없는 착각이 인생의 과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훔 선지자는 이 끊임없는 착각이 끝나기를 바라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앗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멸망 예언입니다. 나훔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BC.660년으로부터 BC.612년경입니다. 실제로 앗수르가 BC.612년에 망했고 본서에 등장하는 사건들을 종합해보면 나훔 선지자가 최소한 BC.663년에는 활동을 시작했으리라는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유다 역사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우상숭배가 이루어졌던 므낫세 왕의 통치 말기입니다. 남 왕국 유다가 BC.586년에 망할 때까지 므낫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섯 왕이 바뀌게 됩니다만 요시야 왕을 제외하고는 모든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전에 살펴보았던 요나 선지자의 시대는 약 BC.760년경으로써 나훔 선지자로부터 약 100년 전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의 멸망을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본문에서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의 확정된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의 예언은 남 유다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당시 앗수르는 중근동 지방의 패권국가로서 주변 국가들의 위협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남 유다 또

한 BC.701년에 앗수르에 조공을 바치는 등 고초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루어진 나훔 선지자의 니느웨 멸망 예언은 남 왕국 유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리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예언대로 앗수르는 BC.61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훔 선지자의 본래 의도는 결코 선민들에 대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남 왕국 유다는 니느웨의 멸망을 기뻐할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큰 고충과 박해 속에서 말씀을 전했는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니느웨가 망할 것으로 인해 기뻐하기에는 선민들의 영적 타락의 상태가 위로를 받을 만한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던 니느웨의 멸망을 위로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남 왕국 유다가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니느웨가 망하리라는 예언이 주어진 목적은 선민들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중근동의 최강국 앗수르에 대한 유다의 태도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불신앙이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나훔 선지자가 관찰한 결과 앗수르에 대해 갖는 남 왕국 유다의 마음가짐은 묵과할 수 없고 용인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4~5절에는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앗수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7절에서는 이와 대비되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말씀만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가 떠오릅니다.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경제보복을 행함으로써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의 문제는 마땅히 그들이 사과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우리나라에 보복을 행한 것입니다. 아베 수상의 안하무인적인 외교적 정책수립의 태도에 대해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에게 생기는 악재는 한국 사람에게는 위로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앗수르와 선민의 관계에 대해 드러난 나훔 선지자의 예언은 마치 일본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는 것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제일 큰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선민들의 마음에서는 그 대답이 앗수르로 정해져있었습니다. 사람은 제일 크게 여기는 것으로 마음을 채우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떨어진 낙엽을 바라보며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하찮은 낙엽을 보며 무엇을 묵상할 수 있느냐고 의아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하찮게 보이는 낙엽이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요새 “하찮고 사소한 일에서 기쁨을 누리자”라는 말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일에서 기쁨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사소한 일이 크게 느껴지도록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크게 여겨지는 일로만 마음을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이야기하시다가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기뻐하셨습니다. 나라를 독립시키겠다는 거대한 꿈을 가진 제자들에 비해 이 여인의 생각은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이 여인의 영혼이 크게 느껴지셨습니다.
그러나 크게 느껴짐이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 중에서 크게 느껴지는 것이 있으며 심지어 원수가 크게 느껴져서 마음을 채울 때도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 시대의 앗수르는 전성기 때의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정복정책을 지속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타민족에 대해 소문난 잔혹함을 드러내었습니다. 정복당한 나라들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토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사람들의 살갗을 벗겨내고 각을 떠서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서 맺었던 모든 협약을 멋대로 깨뜨렸습니다. 당시 중근동 지역의 무법자였습니다. 이러한 앗수르는 유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물론 평화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화평 즉 샬롬이 언급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망하게 하신다니 선민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훔 선지자가 겨냥한 목표는 앗수르가 아닌 남 왕국 유다였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선민들의 마음을 보아하니 하나님보다도 앗수르가 더 큰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선민이 세상을 사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인정하면 됩니다. 15절을 다시 한 번 살펴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선민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앗수르가 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앗수르를 제일 크게 여겼기에 선민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상자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양이 레오노라가 갖고 싶어 했던 제일 큰 상자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가능한 한 큰 것을 찾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애인이 제일 큰 대상일 수 있습니다. 당장 애인이 없어진다면 살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업이 가장 큰 대상일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일구었던 사업이 망할 위기에 처했다면 마음에서 제일 큰 대상은 사업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업이 망하게 된다면 마음은 채울 거리를 잃고 허탈감에 빠져 심지어는 자살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민에게는 기쁜 소식이 주어졌습니다. 가장 크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진정으로 채울 수 있는 대상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제공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제일 크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삶은 저절로 풀려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실제로 제일 크신 하나님을 마음에서 제일 크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몸에 암이라는 문제가 발생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이것이 바로 인생을 결정합니다. 큰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생각은 곧 마음을 채우기 위한 활동입니다.
사업이 망했다면 큰일입니다. 그러나 사업과 하나님을 비교하면 누가 더 큰 대상인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크다면 마음을 큰 대상으로 채우면 됩니다. 사업이 클지라도 하나님의 크기에 비하면 사소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사업이 망해도 몸에 병이 나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에서 제일 큰 상자이기 때문에 사업이나 건강은 애초에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상자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은 세상에서 제일 크신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사소한 문제들을 크게 여깁니다. 이 원죄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회사에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장님에게 욕을 먹었습니다. 사실 사장님은 하나님의 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은 부당한 대우로 인해 마음에 불만이 가득해집니다. 사장님이 앗수르가 된 것입니다. 몸에 병이 난 것도 앗수르이며, 지금 돈이 없는 것도 앗수르입니다. 그러나 본래 건강도 돈도 제일 큰 상자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은 가장 크신 하나님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크기에 비하면 사소하기 그지없는 것들로 마음을 채울 현실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외의 모든 대상에 대해 죽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세상에서 제일 큰 상자인 우리의 마음은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 대상이 앗수르와 같은 걱정이든 기쁨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쁨은 얼마 갈 수 없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사그라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크지 않은 것들을 자꾸 크게 보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세상에서 제일 큰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서 제일 크신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에 오늘도 전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대상들이 마음에서 크게 보이는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 죽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계속해서 제일 큰 분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